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의 영상물을 중심으로

이미경 (Lee, Mi-Kyung) \*

(E-mail : basam@chol.com)

논문접수일 : 2009년 12월 29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8일

---

\*학위취득대학 : 이화여대  
현직: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의 영상물을 중심으로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이 경제난 이후 사회통제이완 등의 현상에 정치사상교양의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교육이 행해지고 있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영상물 속에 그려진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북한교육정책의 이상과 현실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영상물은 주민의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위한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이상뿐 아니라 당시 북한이 처한 교육의 현실 등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영상물 속에 드러난 교육정책의 이상은 학생 모두를 체제 순응적 마인드를 지닌 주체형의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사는 스스로 주체형의 인간으로서 솔선수행하고 희생과 봉사 등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작품 속의 교사의 모습-직업적인 혁명가이면서 희생과 봉사로 혁명의 후비대를 양성하는 또 다른 모성으로서 역할수행과 개인적인 욕망과 성취동기를 가진 생활인으로서의 갈등하는-은 이상적인 교사상과 현실 속에서의 교사의 일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교육정책의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현상은 경제난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서도 영상물을 통해 이상적인 교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이 체제유지에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난이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 북한교육정책의 이상, 북한교육의 현실, 이상적인 교사상, 북한의 영상물, 주체형의 인간

## I. 문제제기

이 글은 북한의 영상물에 나타난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북한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이상과 실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대외적 고립 등 총체적인 위기 속에 도 큰 변동 없이 현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북한은 자력으로 회생불가능하다는 경제난 속에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보유를 통해 체제생존을 모색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가장 비정상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상황을 두고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북한체제의 위기심화가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이와 달리 북한 내 체제위기로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조기붕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 등이다.<sup>1)</sup> 북한은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비 공식부문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 사회 여러 면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속출하고 있으나<sup>2)</sup>

- 1) 최근 북한 붕괴 관련 발표 자료들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붕괴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5~10년 이내 등 가까운 장래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붕괴 요인으로 ①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난 심화, ②김정일 신변이상 가능성, ③주민불만 확산 등 체제이완 현상이 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When North Korea Falls"(로버트 카플란, Atlantic Monthly '06.10월호), 신지호, "북한정세를 읽는 새로운 눈, 국가해체론", 『시대정신』 '06년 겨울호; 다케사다 히데시, 「김정일 체제 붕괴 가능성과 이후 시나리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토론회, '2006.12; 동아시아연구원, "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 체제 붕괴 가능성" 『조선일보』, 2007.1.2 등
- 2) 경제난 이후 종합시장허용 후 외화벌이사업이 중시되자 돈 주와 권력기관들이 합세하여 부를 축적, 신흥부자로 등장하여 정보와 자본을 독점해 생필품, 고가품을 대량 반입하여 되거리 폭리취득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 기업소들은 근로자 부족으로 생활충화가 유명무실하고 권력기관(보위부, 무력부, 보안성 등)산하기업소들은 생필품, 고가품을 독점 수입하여 폭리 취하며 근로자들은 노임으로 (연 4~5회 부정기적 지급 또는 미지급)생계유지가 불가능하여 장기결근하거나 퇴직 후 되거리 장사, 밀수,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의 영상물을 중심으로 111

위기로인들이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엘리트 체제의 공고화와 사회통제의 지속, 그리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주변국들의 지원 등으로 조기붕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sup>3)</sup> 이런 점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가운데 하나는 북한체제가 급변사태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에도 나름대로의 위기관리를 통해 체제내구력을 높이려는 체제유지 수단이 무엇이며 그것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 체제붕괴 위기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차원에서 북한체제유지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교육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교육은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화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북한은 교육의 중요성을 해방 이후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강조하여 교육제도의 수립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북한의 교육제도는 취학 전 교육,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근로자를 위한 성인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로 간주돼왔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은 경제난 이후 교육 기자재 파손, 교육시설 낙후, 출석률 저하, 수업 질 하락, 교권하락 등과 같은 파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당국은 체제유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운영의 파행화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 분야의 사상적 이완을 정치교육의 강화를 통해 방지하는 한편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통해 경제 재건을 도모하려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밑에 등에 종사하고 있다.

- 3) 북한체제에 대한 조기붕괴론은 북한이 내뱉은 익숙한 폐쇄적이고,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난에 따른 붕괴 가능성이 낮고,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이상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징후가 없으며 군부 등 체제보위기구의 견제와 시민사회의 미발달이 사회내부의 불만이 조직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고 보고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평화재단, 「북한의 위기관리 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 정보위 연구용역 자료, 2006.11 등이 있다.

이런 일련의 북한의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제도 운영의 정상화는 물론 이를 통해 체제유지·발전에 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지만 이에 앞서 이 논의에서는 북한이 경제난 이후 체제위기극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북한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실제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행하고 있고 그 결과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실현시켰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영상물 속에 그려지고 있는 북한의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이상적인 교사상은 북한당국이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 반영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북한교육의 이상과 현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교육을 주제로 한 영상작품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특성 상 공식문헌의 현실은폐성에 따른 정확한 정보습득의 어려움과 현지조사 등의 실증연구 불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이다. 북한의 영상물은 당 정책과 지도자 교시 등을 전달하기 위한 선전선동도구로써 기능하고 있어 현실에 기반을 둔 사실성보다 지향하는 목표로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북한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영상물 속에는 제한적이거나 북한당국의 공식문헌보다 북한의 제반 현실이 많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북한의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교육의 이상과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북한의 이상적인 교사상

북한당국이 원하는 이상적인 교사상은 교육 전반에 걸쳐 총론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년)와 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 ‘교육법’(1999년)에 잘 나타나 있다.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의 영상물을 중심으로 113

이들 문헌에 의하면 북한의 교사는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로,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로 규정하고 있다(김일성, 1977). 물론 북한의 교사에게 있어 우선적인 역할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지도 등을 잘 하는 것이다.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교수 사업이며 교수 사업을 잘하는 것은 교원들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교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 문제를 옹계 결부하여…… 교수 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합니다.” 라는 김정일의 교원의 역할에 대한 언급에도 잘 드러나 있다(집필위원회 1991, 455).

교원들이 이 같은 교수 사업을 비롯한 후대 교육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노동 계급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sup>4)</sup> 이는 교원들이 혁명화, 노동 계급화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 할 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교원들이 혁명화 하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서 정치적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교원들 속에서 당 조직생활,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하며 특히 비판사업을 강화하여야 함을 기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일성, 1977).

또한 교원들은 당 정책을 잘 알아야 하며 자기의 전공 과학 분야에 정통하여야 하며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sup>5)</sup> 교원의 자질은

4) 당은 각급 학교 교원들 속에서 정기적인 학습과 집중학습 등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역사에 대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강화하였다. 강근조, 『조선교육사4』, (사회과학출판사, 1991) p. 243, 1991.

5) 당은 교원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과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부르조아 사상, 수정주의사상 등 온갖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독소를 뿌리 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 있게 벌이도록 하였다. 또한 당은 교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해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교수교양사업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다그치도록

교육의 질을 결정하므로 교원들은 정치 사상적으로 견실할 뿐만 아니라 과학 이론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 혁명적인 학습기품을 세워야 하며, 조직사업과 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방식상학’, ‘시범상학’, ‘학술토론회’, ‘경험 발표회’ 등을 자주하며 자질평가를 위한 국가시험의 정기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이 북한에서의 교사는 혁명의 후대를 양성하는 직업적인 혁명가로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 상태가 결정’되므로 교사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6)</sup> 북한의 이상적인 교사상은 이와 같은 임무를 솔선하여 혁명의 후비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북한당국이 원하는 구성원 즉 혁명가를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을 주제로 한 북한의 영상물에 등장하는 교원은 대체로 이 같은 이상적인 교사상으로서 이들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은 당시 북한당국이 원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 III. 교육을 소재로 한 북한 영상물의 특징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예술은 목적주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는 수단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예술은 주민을 북한당국이 원하는 구성원-공산주의 인간형-으로 교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로써 예

하였다. 사회과학출판사, 앞의 책, 1991, P.244.

6) 교원의 사전적 정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교양 하는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 우리나라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중보판), 2006, p.432.

술성보다는 당국이 지향하는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의 역할이 강조된다. 북한이 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은 주체형의 인간으로 당과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 하고 집단주의 정신을 실천하며 혁명과 건설투쟁에 앞장서는 투사로서 가정과 사회생활 모두를 잘 병행하는 인간을 의미한다.<sup>7)</sup>

이와 같이 북한의 예술은 예술성에 무게를 두기보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통해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예술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영향을 고려, 스스로 사회적 목표를 세우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작의 형식면에서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내용면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성 즉, 당성·계급성·그리고 인민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성·계급성·인민성은 모든 예술작품이 충족해야 할 기본 요건으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감성에 맞게 혁명사상으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정웅 1976, 51-2). 이런 점에서 북한의 영상물은 예술성보다는 당국이 지향하는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의 유효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이우영 2006, 135-36).

이에 따라 북한영상물의 주요 내용은 주로 ‘수령을 절대시 하고 신성화 하는 것을 목표로 수령형상창조와 수령결사옹위하고 수령의 은혜에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며 사회주의 제도의 정당성

---

7)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북한사회의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주체사상교양으로부터 만들어지며 북한주민들 모두 되어야 되는 현실목표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제일덕목으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하였으며 집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영웅이 유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이다. 이런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중 하나인 사상개조 선행의 원칙에 근거해서 새로운 전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즉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 위업에 몸 받쳐 투쟁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227-230

에 대한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당 정책관철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 등이다. 북한의 영상물의 주제가 이 같은 내용으로 한정된 것은 다음의 북한예술영화의 제작목표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혁명적 예술영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을 형상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 예술영화는 또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보람찬 생활과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며 사회주의적 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 서도 선전자. 본보기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오늘 우리의 혁명적 예술영화는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우며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에 힘 있게 복무시키고 있다(리현순 1998, 162).”

북한영화의 제작은 모든 인민의 교양을 통해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일심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에 따라 북한 영화제작의 원칙은 당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작품의 소재를 선택하고 사회 발전과 생활의 본질을 당 정책과 관련시켜 묘사해야 한다는 원칙인 당성, 계급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계급성, 인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묘사해야 한다는 인민성, 현실적 모습을 그려야 한다는 현대성 등이다(김영훈 2000, 176).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영화는 내용의 소재가 되는 종자가 어떤 것이든 간에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인민들에게 혁명적 신념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결국에는 당과 지도자, 사회주의 제도의 완전함을 보이는 데 있다(김정일 1973, 56-68; 서정남 2002,32).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의 영상물을 중심으로 117

이를 위해 북한영상물의 구성은 긍정전형의 인물과 부정전형의 인물을 등장시켜 긍정전형의 모범적인 숭선수행을 통해 부정전형의 인물이 긍정전형의 인물로 감화, 전환되는 것이 전형이다. 북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긍정인물의 전형성은 어떤 갈등에도 굴하지 않고 당과 지도자를 떠받들고 사회주의 제도를 잘 지키며 일탈자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인물을 계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북한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부정인물들의 유형이나 성격의 패턴은 긍정인물과 같이 한정되어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 친일매국노와 그 하수인들, 미제국주의자, 자본가 이외 계급적 잔재가 남아있는 인간이나 당 정책에 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과 같은 북한사회의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에서 최근 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적인 인물들의 모습은 외세의 핍박, 망국의 설움, 전쟁의 참혹함 등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신세대의 유약함과 당의 은혜를 잊고 일신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의 형태로 묘사된다(서정남 2002, 171).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인물들의 행위는 당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또는 비판하는 경우와 같이 파격은 없으며 당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실천윤리인 집단주의 원칙과 규율에 어긋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나 태도를 취하거나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처 방식을 보이는 경우이다. 즉 북한의 영상물에서 그리고 있는 부정인물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 정책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잔존하고 있는 낡은 사상적 잔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나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북한당국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고와 태도를 취하며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된다(서정남 2002, 168-69).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정전형의 인물들의 교양 혹은 개조과정은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 공산주의적 인간 즉 긍정전형의 인물로 재탄생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의 매개자는 긍정전형의 인물로 주로 부모세대 혹은 선생님 등이다. 특히 교육

을 주제로 한 영상물 속의 긍정전형의 구체적인 인물은 교사다. 따라서 교육을 소재로 한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당 정책과 지도자의 교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긍정전형인물인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부정전형의 행위를 보이는 학생들이 긍정전형의 인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을 소재로 한 북한영화 가운데 ‘녀교원’ (1986년), ‘키우는 마음’ (1990년)과 텔레비전 드라마 ‘수업은 계속 된다’…… (8부작 텔레비전 연속극, 2006년) 등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작품 속의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 북한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sup>8)</sup>

#### IV. 영상물 속의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을 주제로 한 북한영상작품 속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용전개는 앞서 언급한 북한영화가 담고 있는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으나 그 과정 속에 북한당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이상과 현실이 잘 그려져 있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즉 주체형의 인간양성으로,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사회주의

8) 이외 최근 교육을 소재로 한 북한영화 ‘나의 스승’(2004년 제작) 과 ‘높은 교단’(2006년 제작)도 있으나 ‘나의 스승’은 졸업 후 인민군대에서 북한당국이 원하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영웅적인 투쟁을 불사하는 인민군인)을 통해 오히려 이들 제자가 본받아야 할 스승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영화이고 ‘높은 교단’은 군관학교 선생과 제자의 일화를 바탕으로 당에 대한 충성과 사회주의이념 고취를 강조하고 있는 영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상적인 교사상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인 ‘녀교원’과 ‘키우는 마음’, ‘수업은 계속 된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혁명과 건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등 지도층에 복무하는 충직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을 주제로 한 영상물도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요 내용전개와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이에 준하여 구성되어 있다.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는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당 정책과 지도자의 교시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모두를 북한당국이 원하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교육이 체제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사한 내용전개에 있어서도 작품마다 제작되는 시기의 정치사회적인 상황변화와 그에 따른 당 정책과 현안이 반영됨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 속의 긍정전형의 인물인 교사가 강조하는 교육의 내용이 시기별 당 정책현안과 지도자의 교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며 나아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모범적인 행위와 헌신적인 노력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동원하는 부정전형 인물의 각종 부정적인 행위 등도 변화되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의 영화 ('키우는 마음')에서 보여주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위는 학교를 결석하거나 수업시간에 놀러나가고, 다른 학생들과 싸움을 하는 등 학교규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적인 생계방식의 확산에 따른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와 같은 북한 사회 내 변화가 진행되는 2000년대 이후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과 내용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시기 작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이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과 안락한 생활 등을 희구하는 등 혁명 3~4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태들이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이에 기존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윤리실천의 강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9)</sup>

이 같이 북한의 영상물은 등장인물의 특성과 내용전개에 있어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지만 시기별 북한사회의 변화에 따라 작품 속에 강조되는 주요 내용과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는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강조하는 내용에는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교육의 이상과 함께 당시의 교육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을 소재로 한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는 긍정전형의 인물인 교사가 북한당국이 원하는 구성원의 양육을 위해 강조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부정전형의 인물이 보이는 행동양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 북한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됨과 동시에 북한사회의 변화상과 함께 교사의 위상과 역할 등 북한 교육의 현장실태 등이 드러날 것이다

## 1. 교사의 지위와 역할

북한체제에서 교육은 혁명과 건설의 후비대(혁명의 대들보) 양성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사회화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사는 이 같은 교육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역으로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은 북한 영화나 드라마 속의 전형적인 교사상이다. 시기별로 북한사회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양태 등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교육을

---

9) 정치, 경제적 경험에 기초하여 북한의 세대를 구분하면 혁명 1세대는 항일 빨치산 세대, 2세대는 전쟁 및 전후복구세대(천리마세대), 3세대는 3대 혁명세대, 4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이다. 북한당국은 3세대, 4세대 모두 전쟁과 체국주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므로 반제 혁명역사의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쓰자’ 『로동신문』 사설 2006.7.21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적 요구 등이 차이를 보이지만 교사의 역할과 태도는 큰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작품 속의 교사는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만이 아닌 스스로 당국이 원하는 주체형 인간으로서 숭선수행을 통해 학생들을 긍정전형의 인물로 감화시키며 이 과정에서 헌신과 봉사, 희생을 불사하는 또 다른 모성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sup>10)</sup>

북한에서 모성은 여성 본연의 임무로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의 양육이 우선적인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조선녀성』 등 북한의 공식문헌을 비롯한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이상적인 모성은 우선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육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 공산주의 도덕을 갖춘 인간으로서 당과 국가,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 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것을 희생할 줄 알며 혁명과 건설투쟁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었다.<sup>11)</sup> 영상예술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교사상도 이와 같은 이상적인 모성상과 같이 모범적인 북한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숭선수행을 통해 당국이 원하는 후비대 양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교사의 위상은 “임금 다음 선생이고 그 다음이

10) 이 논의에서 교사상으로서 또 다른 모성이라 함은 북한체제에서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자로서 사회 속의 부모라는 의미에서이고 특히 모성이라 함은 북한영화 속의 이상적인 교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주로 여성인데 따른 것이다.

11) 『조선녀성』은 북한여성의 대표적인 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여맹-의 기관지의 성격을 지닌 가장 대표적인 북한여성관련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조선녀성』은 1946년 7월에 월간지로 창간된 이래 1982년 8월까지 매월 발행되다가 그 이후에는 1년에 6회 발행되는 여성 잡지이다. 이 잡지의 주 내용은 기관지의 특성답게 당, 정권기관 등의 정책을 해설, 선전하고 여성들의 모범적인 삶의 전형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을 교양, 교육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선녀성』은 북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 권고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시기별 대내외 상황에 따른 정책차이로 강조와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여성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로 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이미경 “북한체제에서의 모성, 모성이데올로기”, 북한연구학회편,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부모다.” 라는 영화(‘너교원’)의 대사에서 상징하듯이 혁명가이면서 혁명의 대들보를 양육하는 자 혹은 조국 후예를 키우는 전사로서 희생, 봉사,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또 다른 모성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영화 ‘너교원’(1986년 작)에서 교사 향순은 해방 직후 아이들의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영숙)를 교육시키려는 시도에 반감을 가진 지주로부터 살해당한 아버지(설봉선생)를 대신해 산골마을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영숙을 친딸로 키워 교원으로 만드는 한편 마을 일로 양친을 잃고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진 세 아이를 친 자식처럼 양육한다. 또한 영화에서 향순은 한국전에서 남편이 전사하자 재혼도 하지 않은 채 40여 년 동안 산골마을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헌신하는 등 개인적인 삶을 기꺼이 희생하였다.

이 같이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학생교양을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사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모습은 자신의 가정과 아이들보다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반 학생들을 더 우선시 하는 것이었다. 드라마 ‘수업은 계속 된다’(2006년 작)에서 담임교원인 윤실은 중학교 졸업생들을 고치농장에 집단 진출시키려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반 학생들 대부분이 고치농장에 집단진출하자 가정을 남편에게 맡긴 채 반 학생들과 고치농장에 가서 숙식을 함께 하며 학생들을 보살핀다. 더욱이 아픈 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농장에서 문제가 생긴 반 학생을 살피기 위해 농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특히 영상작품에서 교사의 희생과 봉사 등이 부각되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긍정전형의 인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쏟아 붓는 갖은 노력과 정성 등이다. 영화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하지만 학생을 긍정전형의 인물로 전환시키기 위해 취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교사들은 소속 집단에서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혀 있는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교정하는 방식을 통해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영화 ‘키우는 마음’(1990)에서 소년단 지도원(교원)인 은정은 태일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 수영 잘하는 장점을 살려 수영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과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교정해주었다. 교사 은정은 태일이 과거 ‘전국 알아맞히기 경연대회’에 참가해 등수 안에 들지 못한 이후 빗나간 행동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태일에게 다시 참가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이에 대비하여 방과 후 개인 지도까지 행하여 결국 대회에서 최고 등수를 받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교사 은정의 헌신적인 모성의 역할이 부각된다.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기 위해 직접 강가로 뛰어 들고, 사회 안전원에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신해 지도책임의 소홀로 처벌받겠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라는 북한당국의 규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역할은 텔레비전 드라마인 ‘교육은 계속된다’ (2006년도 작)에서 교사 윤실이 수업시간에도 모자를 벗지 않고 반항아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 강범을 야단치기보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의 사정을 알아낸 후 교정해주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우선 강범이 수업시간에도 모자를 벗지 못하는 사연이 탈모 증세와 머리에 심한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병원과 장인 남편의 도움을 받아 치료약을 구해 직접 치료를 해주고 이어 공연하러 온 예술단 단장에게 가발을 구해주는 등 갖은 노력을 통해 강범을 모범적인 학생으로 변모시킨다. 교사 윤실은 강범이 탈모증 이외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 또 다른 요인이 탈모 증세를 놀리는 동료학생을 때려 학급 장에서 물러나게 된 데서 연유됐다는 것을 안 후 강범을 학급 장으로 추천하여 자신감과 책임감을 부여해 주기도 한다. 또한 학생을 위한 교사윤실의 희생적인 행위는 영화 ‘키우는 마음’의 교사 은정처럼 강범이 농장작업반장의 편파적인 작업지시에 반발, 폭력을 휘둘러 처벌받자 대학시험을 치러야 하는 강범을 대신해 보안서에 잡혀있겠다는 제의를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혁명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사의 희생과 봉

사는 개인적 삶 뿐 아니라 교사 개인의 성공과 바람 등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었다. 영화 ‘녀교원’에서 교사 향순은 당초 산골마을 교원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으나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가 있어야 나라가 흥한다. …… 나라가 있어야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어야 배움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는 지도자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도시로 나가지 않고 산골마을에 남아 40여년간 교사생활을 한 것이다. “교사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 것이 참된 교육자”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는 드라마 ‘교육은 계속된다’ 에서 윤실은 교육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 북한주민에게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 중 하나인 노동당원이 되는 것을 미루는 한편 자신의 치적과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인 작업반장의 역할인 분조장을 자기 대신 학생에게 부여하여 결국 학생과 함께 당원이 된다.

한편 북한의 영상물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혁명인재 양육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과 봉사만이 아닌 개인보다 국가와 당을 우선시하는 주체형의 인간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드라마 ‘교육은 계속된다’에서 학생들이 농장에서 생산한 누에고치를 빼내 교사 윤실의 치료약을 준비하자 윤실은 치료를 거부하고 농장지배인에게 사죄하고 학생들을 크게 꾸짖는다. 나아가 윤실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을 위해 봉사하는” 제자를 키운 것은 교육자로서 당 앞에 면목 없음을 반성하고 비판하며 입당지원서 제출을 보류한다. 이것은 교사 윤실이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것보다 집단적인 것을 우선하고 개인적 필요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요구 등 대의명분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영상작품 속에서 강조하는 북한의 교사상은 단순히 지식 전달과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북한당국이 원하는 완벽한 주체형의 인간으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한편 개인적 희생과 헌신의 노력을 통해 학생 모두를 주체형의 인간으로

육성시키는 책무를 지닌 또 다른 이상적인 모성상이다.

## 2. 북한교육의 내용과 방식

북한영상물 속에 강조되는 교육의 주요 내용은 북한당국이 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북한체제 유지에 필요한 구성원인 주체형의 인간이 갖춰야 할 요건들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내용은 시기별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거나 공통적인 것은 지도자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 할 수 있도록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활동을 강조하는 정치사상교육과 북한사회주의 건설에 일로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과 생산노동결합의 종합기술 교육 등이다(정민수 2004, 292-93).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중시되는 교육내용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다 하는 충실성교양이다.

북한에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최고지도자의 권위가 북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체제특성상-유일지배체제, 수령제- 당연한 것이나 특히 유일지배체제의 이론적 토대인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정당화된다.<sup>12)</sup>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혁명적 수령관과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 인민대중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북한주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제일의 덕목이다.<sup>13)</sup>

12) 북한체제특징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수령으로 불리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김일성-김정일)가 이데올로기, 법, 제도, 규범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령제 혹은 유일지도체제라 할 수 있다.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 『北朝鮮 - 社會主義と 傳統の 共鳴』 (동경대 출판부, 1992), [유영구(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5)]. pp. 71-102

13)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이분법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유기체로서 살며 행동하는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살며 활동하는 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후자가 더 중요하고 이것은 영생하는 것으로 수령부터 받는다. 즉 수령, 당, 대중은 정치적 생명체 안에서 ‘혈연적 관계’로 맺어지는

이에 따라 북한영상작품 속에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다 해야함을 당연시하는 충실성교양의 강조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도자의 위대성을 부각시켜 경외심을 갖게 하고 북한주민이 향유하는 모든 것들은 지도자가 베푼 은혜로 간주 되어 이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교육을 다루는 영상작품도 예외는 아니다. 영화 ‘너교원’에서는 학생들이 지도자를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교사 향순이 지도자의 음성만이라도 직접 듣게 해주기 위해 100리길 떨어진 군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 지도자의 라디오 방송연설을 듣게 하거나 향순이 교장선생님이 된 후에는 북한지도부의 항일혁명역사의 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두산 삼지연의 물을 떠와 학생들에게 맛보게 하는 행위 등이 그려지고 있다.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교양은 드라마 ‘교육은 계속 된다’에서도 교육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드라마에서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개인적인 적성과 취향보다 국가와 사회의 요구, 나아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다. 드라마 속에서 학생들에게 권유하는 졸업 후 진로는 인민군에 지원하는 것과 고치농장에 집단 진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당과 국가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지도자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체제유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고 북한 교육의 주 내용은 바로 이 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 가운데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개인의 이익에 앞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이에 대한 강조가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어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뿐 아니라 일

---

것으로 규정되고 대중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아버이수령’에 대해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이종석, pp.216-218;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서울: 백산서당, 1989)

상생활에서도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행위를 장려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것이 잘 그려져 있다. 드라마 ‘수업은 계속된다’에서 교사 윤실은 학생들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 수술한 담임교사의 약을 마련하기 위해 수확해 온 고치를 판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들을 꾸짖는 한편 제자들이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위해 봉사” 하게 한 것을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당 앞에서 면목없음을 비판하면서 그녀가 바라던 입당지원서 제출을 보류하기까지 한다. 또한 드라마 속의 교육의 주 내용은 개인의 사회활동이 사회적 지위 획득과 같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과 국가를 위한 것이고 나아가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한결 같이 농장에 집단 진출하여 고치생산의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개인적 업적으로서 당원과 간부가 되는 지름길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 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는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현실만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교육은 계속 된다’의 드라마는 경제난의 심화로 국가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자재마련과 노력동원 등으로 각종 사회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현실에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어려운 경제적 현실 속에도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꺼이 고통과 난관을 극복하는 교사와 학생의 모습을 통해 이를 당연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충실성이 강조되고 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집단농장에서의 많은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때마다 언젠가 지도자가 현지 지도를 올 경우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곤란극복을 독려하고 있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 전개는 북한교육의 주 내용이 지도자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 해야 함을 강조하는 충실성교양으

로서 이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영상예술 작품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방식은 긍정감화 교육이다. 긍정감화교육은 북한에서 대중들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교양방식 가운데 하나인 ‘…… 따라 배우기’ 운동으로 사상학습과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총화하고 분발하도록 이끄는 사상교육방법이다(한만길 2003, 83-4; 이미경 2007, 204-5). 영화 ‘너교원’과 ‘키우는 마음’ 그리고 드라마 ‘교육은 계속 된다’에서 교사 향순과 은정 그리고 윤실이 학생들을 긍정전형의 인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용한 교육방식이 긍정감화교육이었다. 이들은 모두 온갖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필요로 하는 주체형의 인간으로 출선행위를 하는 모습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감화시켜 긍정전형의 인물로 만든다.

또 하나 영상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북한의 교육방식은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다. 이 교육방식은 학생들을 쓸모 있는 산 지식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북한교육과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교육과 생산의 결합으로 일컬어지는 종합기술교육이 반영된 것이다. 종합기술교육은 본래 전면적으로 발달된 인간 양성을 목표로 생산노동과 교육을 결합한 사회주의교육의 특징으로 수업주제를 생산 및 사회조직의 문제와 연결시켜 교육하거나 종합기술교육 전담 교과를 설치하는 한편 노동을 교육과정에 직접 편입하는 것이다(조정아 2005, 86-92). 드라마 ‘교육은 계속 된다’에서의 농촌지원활동이나 고치농장에 진출하여 농사짓는 행위 등 교육관련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의 노력동원활동은 정규교육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종합기술교육은 생산활동의 참여를 통해 생산에 필요한 실제 기술기능을 훈련하고 생산관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며 노동애호와 집단주의정신 실천 등 사회주의적 태도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노동력

활용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교육방식은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의 참여를 통한 주체형의 인간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으로 북한학생들은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조직에 가입하여 각종 사상교양학습과 녹화근위대활동, 사회주의건설지원 운동 등의 참여를 통해 혁명적 실천활동을 해야 한다. 조직생활은 비단 학생만이 아닌 북한주민들 모두에게 의무적인 것으로서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로 조직생활이 요구된다.<sup>14)</sup> 북한체제에서 조직생활은 주민들의 의식화와 조직적인 통제를 행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 각종 조직 활동은 북한체제 유지에 기능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북한학생들의 학교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조직생활로 이를 통해 각종 사상교양과 혁명적 실천 등이 이루어진다.<sup>15)</sup> 영화 ‘키우는 마음’에서 학생들의 주요 활동은 소년단생활로 그려지고 있으며 영화 속의 주인공 교사 은정은 학급담임이 아닌 지도원 교원으로서 학생지

- 
- 14)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집단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 주민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직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린이는 출생 후 3개월 정도 지나 탁아소 생활을 하면서 조직생활을 익히게 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들어가면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공식적인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노동당이나 직업총동맹(직장인)과 농업근로자동맹(협동농장원) 등 노동당 외곽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야 하며,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 여성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 15) 북한에서는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에 만 중학교 4학년부터 김일성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해야 하며 이 조직을 통해 각종 사상교양이 이뤄지면 사상투쟁, 혁명적 실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모두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나 2월 16일 김정일 출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출생일 그리고 소년단 창건기념일인 6월 6일 등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단한다. 학생들은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입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 아니라 집안성분도 좋아야 한다. 소년단 생활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중학교 4학년이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한다. 청년동맹 가입은 소년단에 입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추가적으로 시(군·구역)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에 있어 담임선생님께 뒤지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드라마 ‘교육은 계속 된다’에서도 학생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일원으로서 학교생활과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조직을 통해 규율통제도 이뤄지고 있었다. 북한의 학교규율은 주로 학급 담임교사와 소년단, 청년동맹 등 청소년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중에서도 청소년 조직은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동료 학생들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학생들이 조직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한 자기반성과 상호비판을 통해 잘못된 행위들을 시정해 가려는 시도들이 잘 그려져 있다.

### 3. 북한교육정책의 이상과 실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영상예술은 선전선동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보다는 지향하는 바의 현실을 담고 있어 작품 속에 그려지는 사실은 실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실제 북한교육이 처하고 있는 현실보다 북한당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이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는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만이 아닌 이를 강조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북한이 처하고 있는 교육의 현실과 함께 북한주민들의 삶과 의식들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을 소재로 한 작품 들 속에 보여 지고 있는 북한사회가 처한 경제사회 상황과 교육현장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양태 등을 통해 북한교육의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을 소재로 한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교사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임과 동시에 희생과 봉사로 혁명의 후비대를 양성하는

또 다른 모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인적인 희망 혹은 성취동기를 가진 생활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 진다. 작품 속의 교사들은 학생 모두를 북한당국이 원하는 구성원으로서 양성하기에 앞서 본인 스스로 주체형의 인간으로서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 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사회적인 출세와 같은 개인적인 성공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그려진다. 드라마 ‘수업은 계속 된다’에서 모범교사인 윤실의 친구이자 윤실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전 담임교원인 희옥은 윤실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교원으로 거듭나지만 혁명후비대 양성에 앞서 개인적 업적을 달성하여 당원과 간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같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집단주의 원칙의 실천 간의 갈등은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양태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드라마 ‘수업은 계속된다’에서 졸업 후 진로 결정 시 아픈 엄마의 간호를 위해 집을 떠나 있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 성적이 좋아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획득한 학생 등은 각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농장에 집단진출하기를 원하는 국가의 요구를 놓고 심하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작품에서는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체제 특성상 개인의 희망보다 국가와 사회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행과 개인적인 성취욕구간에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런 현상은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생계방식과 그에 따른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등이 만연되고 있는 북한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속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양태들은 북한 교육이 표방하는 이념과 달리 수업시간을 빼먹는 것과 복장 불량, 동료학생 괴롭히기, 거짓말 등 학교규율의 불이행과 같은 집단주의 원칙실천과 거리가 있는 북한학교생활의 현실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실제 모습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영화 ‘키우는 마음’과 드라마 ‘수업은 계속 된다’

에서 학생들이 결석을 비롯한 각종 수업규율 위반과 복장 불량,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규율 위반하는 현실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학교규율 위반 현상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학교교육운영의 파행이 확산되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작품 속에 드러나는 북한 교육의 현실은 당시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 사회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 ‘너교원’에서 교사 향순은 자신이 양녀로 삼아 지도한 학생 영숙이 자기처럼 교원이 되겠다고 하자 교원생활을 산골마을에서 하기를 권유한다. 이는 북한사회의 젊은이들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며 교사들 또한 시골농촌에서 근무하기를 꺼려 이 지역의 교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 ‘키우는 마음’과 드라마 ‘교육은 계속 된다’에서는 1990년대부터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중앙으로부터의 물자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나 집단농장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꾸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그려져 있다.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와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능력 있는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당국자로부터 우대받는 상황이 영화 ‘키우는 마음’에서의 다른 학부모보다 능력 있는 가정을 가진 재수의 어머니가 교사나 학교당국자에게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드라마 ‘수업은 계속 된다’에서는 집단농장에서 학생들이 거주할 공간이 없어 농장일의 시작이 숙소 짓는 일이고 원자재를 전혀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재 구하는 것에서부터 숙소를 건설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자력구제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교육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 속에는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위해 강조하는 북한교육정책의 이상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사회 상황과 함께 북한교육의 현실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영상물 속의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 북한의 교육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교육의 이상은 학생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를 체제 순응적 마인드를 지닌 주체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교사는 이를 위해 스스로 북한당국이 원하는 주체형의 인간으로서 솔선수행하고 희생과 봉사 등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는 것이다. 북한의 영상작품은 주민의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위한 선전선동의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이상실현을 위한 당 정책과 지도자의 교시 등이 잘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영상물에는 북한당국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이상적인 현실이 잘 드러나 있고 이와 함께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한의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실제 처하고 있는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교육을 소재로 한 북한의 영상작품에는 북한당국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이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상과 대비되는 실제 북한교육이 처한 현실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드러나 있다. 작품 속의 교사는 직업적인 혁명가임과 동시에 희생과 봉사로 혁명의 후비대를 양성하는 또 다른 모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인적인 희망 혹은 성취동기를 가진 생활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 진다. 작품 속의 교사들은 학생 모두를 북한당국이 원하는 구성원으로 양육하기 위해 스스로 주체형의 인간으로서 생활해야하는 의무와 사회적인 출세와 같은 개인적 성공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교사상이 현실 속에서의 교사의 일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교사는 혁명인재의 양성을 위해 모범적인 생활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는 이상적인 인간이기에 앞서 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지닌 자연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사는 공적인 의무와 개인적

인 욕구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양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의무보다 욕구가 앞서는 경우가 생기며 이런 현상은 경제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임금 다음 선생이고 그 다음이 부모다.” 라는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며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교사의 지위는 경제위기 이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며 특히 자력갱생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면서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것들이 많아지자 교사에 대한 인식은 나빠졌다고 한다.

한편 교사들도 끊임없는 업무와 함께 배급중단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교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교사의 주 업무는 교육이지만, 방과 후 학습부진학생 혹은 우수학생의 학습지도 이외 학습과 총화시간 및 분과모임과 교재연구 등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철도공사지원, 주변농장지원, 식수, 국토정리 등 각 시기마다 제기되는 노력동원과 과정 안에 따라 진행되는 노력동원 등이 있고 봄과 가을에 학교에서 꾸리는 동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하여 마음대로 조직생활에 빠질 수 없고 장사에 나서거나 퇴직할 수도 없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이다. 따라서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경제난 이후 교사는 인기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여 미혼의 여교사들은 병, 결혼 등을 빙자하여 휴직한 후 장사에 나서고 기혼의 여성교사들도 직접 장사에 나서기 위해 결근하여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교원들은 몇 조로 나누어 시 당교육부 모르게 여러 날 교대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학교에 남은 교원들이 몇 개의 학급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이미경 2007, 209-10).

북한교육의 현실은 이상과 같은 북한 당국이 바람직하다고 상정하는 이상적인 교사상과 다른 현실적인 교사의 모습과 경제난 이후 교육 기자재 파손, 교육시설 낙후, 출석률 저하, 수업 질 하락 등과 같

은 파행 속에 위기를 맞고 있음이 여러 통로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북한당국이 영상물 속에 이상적인 교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난 이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을 바로잡아 교육 본래의 기능인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강근조, 1991, 『조선교육사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일성, 1986,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1 “군중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1961.3.7), 『김일성저작집  
15』,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4, “영화예술론”, 『김정일 선집 3』 (1973),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 김정웅, 197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적 문  
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 평  
양: 사회과학출판사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북한사회과학연구원, 1989, 『철학사전』, 서울: 힘
- 리현순, 1998, 『사회주의 영화예술건설』, 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89, 주체사상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서울: 백산서당
- 사회과학원, 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집필위원회, 1991, 『사회주의교육학』 -사범대학용- , 평양: 교육도서  
출판사
- 서정남, 2002, 『서정남의 북한영화탐사』, 서울: 생각의 나무,
- 이종석, 2000,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임순희, 2000,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  
원
- 정민수, 2004, 『북한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조정아, 2005,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서울: 통일  
연구원
- 전영선, 2002,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서울:역락
- 김영훈, 2000, ‘북한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 『탈분단시대를열며』, 서울: 삼인
- 신지호, “북한정세를 읽는 새로운 눈, 국가해체론”, 『시대정신 06년 겨울호
- 이미경, 2006, “북한체제에서의 모성, 모성이데올로기”,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 \_\_\_\_\_, 2007, “북한교육과 문학예술”,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 한만길 위음, 2003,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북녘에서 살다 온  
 16인의 생생한 교육체험기, 서울: 우리교육
- Robert D. Kaplan, “North Korea Falls”, Atlantic Monthly ‘06.10월  
 호
- 다케사다 히데시, 2006.12, 「김정일 체제 붕괴 가능성과 이후 시나리  
 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토론회,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 1995, 『北朝鮮 - 社會主義と 傳統の 共  
 鳴』 (동경대 출판부, 1992), [유영구(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  
 회주의』, 서울:중앙일보사
- 평화재단, 2006.11, 「북한의 위기관리 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  
 정보위 연구용역 자료
- 『조선일보』 2007.1.2
- 『로동신문』 사설 2006.7.21

# The North's Korea's Education Scheme, through the Role of an Ideal Teacher

Lee, Mi-Kyung

(Ministry of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figure out the North Korea's education scheme through the ideal model of teacher in a work of film & drama. A film & drama of the North Korean have worked on as a means of propagation and agitation for education of political thought and cultural of appreci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n Ideal of the North Korean Education in a work of film & television drama is to bear the North Korean student members of the society, passive being who have to obey the dictation without condition, a subjective communist (an 'juche type' human being). Also the teacher had to carry out everything based on sacrifice and devotion as a fosterer of members of the society in order to be equipped requirements as a member of the society.

The teacher in a work of film and television drama had to carry out their social duty as a professional revolutionist & a fosterer of revolutionary posterity and simultaneously they have ambition to make their mark in the world. There is sometimes discord between their social duty and their ambitions. The discordance between the ideal model of teacher and the actual

model of teacher have become larger after the economic difficulties. None the less the discordance between ideal & reality, an ideal model of teacher in a work of film & television drama aims to enlighten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o normalize the abnormal operation of education that the North Korean education have managed irregularly after the economic difficulties.

**Keywords** : the North's Korea's education scheme, an ideal of the North Korean education, a reality of the North Korean education, the ideal model of teacher, an 'juche type' human being